

주일의말씀

행복하십니까?



김종률 스테파노 신부
교구 가정담당

행복이란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생겨납니다. 두 눈을 감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면 얼굴이 구겨지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돈을 떠올리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머릿속은 온통 이런저런 생각들에 꽂 차 버립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렇듯 행복은 사랑받는 느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사랑받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사랑해줄까요?

사랑받기만을 원하면 이기적이 됩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줄 때,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러합니다만,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더욱 그러하고 또 필요합니다.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 관련 프로그램들(ME,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을 통해 가

정의 행복을 되찾고 기뻐하며 떠나간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 이 바로 행복하게 웃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이 늘 순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부부의 연'이 끈질기고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동호회 만들고 해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바라듯이, 여러분들의 가족 역시 행복하길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받을 것이고, 그들이 사랑받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와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더욱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래서 행복이 가득 차 넘쳐흐르는 가정을 모든 신자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말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마태 2,13 참조
집회 3,2-6.12-14 콜로 3,12-21 마태 2,13-15.19-23.


12.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 성직자 묘지 축성

문화홍보실

공 동묘지는 보통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에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딱 하나, 도심 한 가운데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바로 남산동 교구청 안에 있는 성직자 묘지입니다. 1915년에 드망즈 주교님은 선교사들이 선종했을 때 묻힐 곳을 마련하고자 이 묘지를 조성하셨습니다. 지금 성직자 묘지에는 지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교구에서 복음을 전한 성직자들이 묻혀 계십니다. 처음 묘지를 조성하신 드망즈 주교님으로부터 불과 1년 남짓 전에 선종하신 최영수 대주교님까지 역대 교구장님들의 묘소가 제일 안쪽에 있고, 그 앞으로 성직자들의 묘소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 성직자 묘지 문 양 옆에는 “Hodie Mihi, Cras Tibi”란 글이 새겨져 있는데, 라틴 말로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 말을 들려주면 “너도 머잖아 죽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뜻으로만 알아듣고는 기분 나빠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글자 그대로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평생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주님 품으로 가신 주교님 신부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귀를 읽으면 경고의 뜻뿐만 아니라 기쁘게 초대하는 뜻도 들어 있는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오셨던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님들은 이역만리 타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 하셨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난 후에 오신 분들도, 가난과 불편을 견디며 일하시다가 선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 땅을 찾아오실 때는 “좀 해 보고 어려우면 그만 뒤야지.”하고 생각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대구교구 신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이 지역에 주님 말씀을 죽는 날까지 전하고, 마침내 이 땅에 뼈를 묻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밀알이 땅에 심기듯 남산동에 뼈를 묻으셨습니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성직자 묘지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교우들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그 약속의 마지막 실행으로 그곳에 묻히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님께 바친 희생이 없었으면 과연 지금 우리 교구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어받아 주님을 섬기게 되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희생을 바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앞서가신 주교님 신부님들께서 묘지의 문에 새겨진 저 글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네들 차례 일세!” 

이 성탄의 기쁨을...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입당 성가

114 나자렛 성가정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 성가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영성 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파견 성가

113 성요셉과 성마리아

영성의 향기

:: 하느님의 기쁨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에페소서에 보면 “주님을 기쁘
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가려내십시
오.”(에페5,1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어
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겠습니까? 같은 장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
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하지만 정말 무슨 일이나 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내가 반기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호
세6,6)하고 우리들에게 호소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서 우리를 끄찍이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
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보다 부모 마음을
더 흐뭇하게 할 선물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를 귀여워하시는 아버
지의 사랑이 변함없는 줄을 안다면 언제라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아버지 마음



시간을 잘 지킬 줄 모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늦고, 약속시간도 어기기 일
썩었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가 야단을 쳐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루는
아버지가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오늘도 집에 늦게 들어오면 경을 칠 줄 알아라!” 하지
만 웬걸, 소년은 어김없이 또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에 앉은 소년은
자기 앞에 달랑 콩 한 조각이 담긴 접시만 놓여 있고 다른 가족들 앞에는 모두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자기 앞에 놓인 푸짐한 접시를 아들의 접시와 바꾸어 놓고는 말했습니다. “애
야, 앞으로 또 늦으면 오늘처럼 할 거다.” 자기 때문에 콩 한쪽만 드시는 아버지를 본 소년은 그 후로 다시
는 시간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 율겨은 글입니다 -

성모당 전대사 미사

- 일시: 2011. 1. 1(토) 11:00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행사 / 모임 -

교구 100주년 경축대회 실무위원회 출범 미사 및 100주년 홍보사절단 파견식

- 일시: 2011.1.1(토) 14:00, 계산주교좌성당

2011년 교구 사회복지 신년교례회

- 일시: 2011.1.8(토) 15:00~17:00
 - 장소: 교구청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
 - 대상: 가톨릭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본당위원
-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선,후배 신년교례회
- 일시: 2011.1.3(월) 19:30
 -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2층강당

- 성소 / 피정 -

성바로팔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1.3(매월 첫 월) 19:30
- 장소: 바로로 딸 대구 서원
- 문의: 010-2503-5185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기념 동계 성소피정

- 대상: 중1,2 (내년 기준)
- 일시: 2011.1.11(화)~12(수)
- 대상: 고3, 대학, 일반 (내년 기준)
- 일시: 2011.1.17(월)~20(목) 3박4일
- 장소: 동명-헌티, 마감: 12.29(수) 16:00
- 문의: 250-3071/010-6776-3071, 본당 사무실

꽃동네 성소자 동계피정

- 일시: 12.26(일)18:00~28(화)16:00, 음성꽃동네
- 대상: 대학~35세미만
- 문의: 011-464-1265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 일시: 12.28(화)신암성당 14:00, 연일성당 19:30
12.29(수)성토마스성당 14:00

- 모집 / 교육 -

1월 영어 성경공부반 모집

- 개강: 1.4(화) 10:00~12:00, 월2만원
- 과정: 화)코린토2, 신명기, 목마태오, 창세
- 문의: 관덕정 254-0151/ 010-2578-553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와이어공예 지도자 과정

- 일시: 2011.1.6(목) 19:00
- 방학특강 칭찬기술(단기반)
- 일시: 2011.1.3(월,수,금) 10:00
- 문의 및 신청: 254-6115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

- 일시: 1.12(수)~18(화)
-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제20회 성 이윤일 요한제

성이윤일요한제를 위한 9일기도, 미사

- 주제: 순교의 꽃이 핀 교구 100년
- 일시: 1.12(수) 15:00~20(목) 15:00
(단, 토요일은 17:00)
-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세계 청년 대회(W.Y.D) 참가 신청

- 대회일시: 2011.8.11(목)~24(수)
- 장소: 스페인 마드리드
- 신청마감: 12.31(금)
- http://club.cyworld.com/2011wyd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플러,바이올린,POP,천연비누와화장품만들기

가톨릭요셉발간강회 강좌 '밭은 제2의 심장'

-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 문의: 476-7774(교재 및 도구포함10만원)
-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

2011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전기2차 석사과정 아간2년제 신입생모집

- 학과: 경영대학원,디자인대학원,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국제대학원,음악대학원
- 원서접수: 2011.1.3(월)~12(수) 휴일 제외
- 문의: 526-3417(http://www.cu.ac.kr)

- 직원 채용 -

성바로안나의집 요양보호사 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 문의: 054)382-1634

가톨릭소화어린이집 교사 채용(대명동)

- 문의: 656-0561

- 안 내 -

해평 성당 개축 공사에

많은 관심과 정성 부탁드립니다.

- 계좌: 농협741066-51-018451
(계)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해평성당
- 문의: 이성한(베르나르도)신부 018-533-2679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준우, 최남숙(글라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 대상: 09년 미수검자 및 2010년 대상자
-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 1차,암검진(암검진은 꼭 예약해야 됨)
- * 건강검진은 성인병, 암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미 사	일 시	장 소
바느의 성모 기도회 미사	12월 30일(목) 오후 2시	삼덕성당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상인 행복을심는 치과병원

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롯데리아 건물 5층

T.633-7504/634-7504

원장: 김원일(안드레아),권광,구선주

 **카리타스 요양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53)255-7222 교구청(성모)재 교육원 가톨릭중

달성피부과

BF 아토피센터 1F 레이저,탈모
2F 여드름,흉터 3F 비만,미용수술

 손재경 다미아노
김인주 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el. 566-4333, 559-7575

가정·사무실·관광사·해외·이사전문

 **로젠이사**
(대구본부)

전국화물용달취급 대표: 서정원(프랜시스)코

www.logen2424.co.kr


T.754-6688 H.P.010-9516-5511

 **오월의정원**
wedding culture 하우스웨딩홀

세상에 하나뿐인 로맨틱드라마

결혼·돌·회갑·기업행사

중구 문화동 대구시티센터(구. 밀리오레)
예약문의 664-7000
www.maygarden.kr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랜시스)코
송 선 희(안 나)

범어네거리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752-7575
(화 · 목 ▶ 야간 진료)

광천 이조맛김

대표 이 경 숙(모니카)

☎041)641-3838,011-504-5810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www.kusb.co.kr)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판희(안토니오)